

2025 인천서구가족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 방안 모색 포럼

인천서구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가족복지 사업 개발

일 시 2025.11.19(수) 10:00-12:00

장 소 복지어울림센터 1층(서곶로 369번길 17)

2025
인천서구가족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 방안 모색 포럼

인천서구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가족복지 사업 개발

일 시 2025.11.19(수) 10:00-12:00

장 소 복지어울림센터 1층(서곶로 369번길 17)

행사일정

□ 일 시 : 2025년 11월 19일(수) 10:00~12:00

□ 장 소 : 복지어울림센터 1층

□ 세부일정 :

시 간	내 용	
09:30~10:00	접 수	
10:00~10:15	개 회	개회사 이영현(인천서구가족센터 사무국장)
		인사말 심정흠(인천서구가족센터장)
10:15~10:30	발표 1	2025-2031년 중장기 경영 계획 보고 공은희(인천서구가족센터 중장기계획TF팀)
10:30~10:50	발표 2	2025년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 결과 발표 김진희(인천서구가족센터 이용자소통TF팀)
10:50~11:00	휴 식	
11:00~11:50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좌 장 김혜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 널 장문정(인천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장미숙(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손무권(피앤아이컴퍼니 대표) 주영신(인천가족센터협회장)
11:50~12:00	폐 회	

목 차

발표 1	2025-2031 인천서구가족센터 중장기 경영 계획 보고 공은희(인천서구가족센터 중장기계획 TF팀)	11
발표 2	2025 서구지역주민 요구도 조사 결과 발표 김진희(인천서구가족센터 이용자소통 TF팀)	21
토론 1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언 장문정(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47
토론 2	지역 내 돌봄 및 양육지원에 따른 가족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장미숙(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53
토론 3	인천서구 중장기 경영계획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방향성 모색 손무권(피앤티아이컴퍼니 대표)	59
토론 4	인천서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원 체계의 재설계 방향 주영신(인천가족센터협회장)	65

발표 1

2025~2031 인천서구가족센터 중장기 경영계획 보고

인천서구가족센터 중장기계획TF팀 공은희

2025-2031 인천서구가족센터 중장기 경영계획 보고

- ◆ 발표자 중장기 TFT 대표 공은희
- ◆ 일 시 2025.11.19
- ◆ 장 소 인천 서구 복지어울림센터 1층

인천서구가족센터

2025-2031 중장기 경영계획 보고

목 차

- 1 기관 소개 _ 일반 현황, 조직 및 인력, 예산 현황
- 2 중장기 경영 계획 수립 배경
- 3 경영성과 및 경영환경 분석
- 4 경영체계도 _미션, 비전, 핵심가치, 전략체계
- 5 2025년 지역특화사업

인천서구가족센터 소개



경영성과 분석 (2022-2024)



보편적 통합 가족복지 서비스 선도

- 수요자 중심 부모 역할 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 통합사례관리 화대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가족 기능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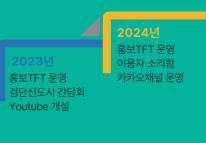
가족구조 변화 및 이용자 욕구 따른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인천 서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 실시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증가에 발맞춘 서비스 확대, 성장 지원
-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 및 수용성 향상

- 강사 및 파견기관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다문화 이해도 향상에 기여
- 다문화·비다문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이해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한국어교육 확대 운영으로 다양한 문화권 주민 참여 증가 및 다문화 수용성 향상



홍보 및 소통을 통한 센터 인지도 향상

- 홍보의 다각화를 통한 프로그램 접근성 강화
- 이용자 의견 수렴과 소통채널 운영을 통한 신뢰도 강화
- 지역 밀착형 소통 기반 강화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배경

Mission은 조직의 존재 목적, **Vision**은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

2021년 5개년(2022-2026) 계획 수립 후 중장기 전략 이행

- >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사업 운영, 전략적 프레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
- > 직원의 내재화를 통한 사업의 연계성 강화가 요구
- >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략 전환 필요
- > 지역사회 요구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의 재정비

기획회의

- 3월 ~ 5월, 7회 운영
- 사업기획 및 운영계획 발표
- '22-'26 전략 검토, 준비



워크숍 운영

- 5월 ~ 9월, 7회 운영
- 중장기 전략 수립 워크숍 (강사: 손무원 대표)



평가회의

- 6월 ~ 8월, 3회 운영
- TFT 평가 회의 2회
- 전체 중간 점검 회의 1회



중장기 계획 수립 TFT 운영

• 인천서구가족센터의 지역사회 변화에 발맞춘
사업 방향성 제시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프로그램

경영환경 분석 - 외부환경(PEST)

정책환경(P)

- (정부) '21.0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급격한 가족 변화 반영
'22.12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
'23.05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과 사회통합 기반 강화
'25.08 기본사회구현, 돌봄 및 의료서비스 강화
(인천광역시) 튼튼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 체계 확충, 인천형 정책 추진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형태와 생애주기 다양화 대응 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서구

경제환경(E)

- (인천광역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가 및 소득 격차 심화
자산구조 취약, 자산대비 부채비율 높음
중년층의 이중빈곤 현상 심각
인천시 재정자립도 및 자체 세입비중 감소
(인천광역시 서구) '25년 예산규모 13,596억, 70% 의존재원
재정자립도 약 27%,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
재정자주도 전년대비 0.6% 하락, 적자 -499억

사회환경(S)

- (다문화) 가족단위 정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 급증
(1인가구) 1인가구 급증, '24년 기준 전국 약 804만 가구, 36.1%
(인천광역시 서구) 전국 자치구 중 인구 2위, 25년 10월 약 65만1천명
생산연령 인구 비중이 높고 고령 인구 비중이 낮음
원도심과 신도심의 인구편차 등 확대
복지시설 부족과 특정지역 편중
2026년 7월 서해구와 검단구 분구 예정

Keyword

기술환경(T)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가능성 증가
(취약계층 접근성) 온라인 기반 서비스 접근성 제약,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심화 우려
(AI·빅데이터 활용) 특정집단에 대한 편향적 결과 도출 가능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인공지능(AI) 기반 초기 상담 서비스 도입
사회서비스 이상결재 탐지시스템 확대
온라인 기반 사회서비스 플랫폼 구축

외부환경(PEST)분석 전략적 시사점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돌봄 맞춤형 가족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통합적 서비스 체계 필요



맞춤형 복지 체계 강화

지역단위 복지기관의 책임과 역할 강화



AI·디지털 기술 확산

서비스 혁신 기회, 기관과 직원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



복지예산 축소, 유사기관 경쟁, 지역 편차

운영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에 위협



경영환경 분석 - SWOT 분석

강점(S)



- S1 직원 역량 강화
- S2 안정된 운영체계
- S3 전략적 사업 수행력(TFT)
- S4 지역 협력 네트워크

약점(W)

- W1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 W2 시설·지리적 접근성 한계
- W3 서비스 인지도 낮음
- W4 중장기 실행 기반 미흡

기회(O)



- O1 행정구역 분리로 수요 증가
- O2 고령화·1인가구 확대
- O3 맞춤형 복지정책 강화
- O4 AI·디지털 복지 확대

위협(T)

- T1 복지예산 축소
- T2 기관 간 경쟁 심화
- T3 운영 효율성 부담
- T4 원·신도심 격차 확대

SO(역량확대)

AI 기반 복지서비스 도입 및 맞춤형 체계 강화

ST(선택집중)

TFT 전략사업으로 지역불균형 완화, 자원 통합관리

WO(기회포착)

인구특성 기반 프로그램 다양화 및 접근성 개선

WT(약점보완)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기반 강화

경영환경 분석 - 이해관계자

이용자

'22 지역주민 요구도조사

- 다양한 홍보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통합 PG, 일자리 사업 확대 요청

'23 검단신도시 간담회

-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1위
- 체험 PG, 센터 접근성 개선 요구

'24 이용자 소리함

- 디지털 소통 채널 필요성 제기
- 전반적 서비스 개선 요청

생애주기·문화적 배경·
가족유형을 반영한 참여형
설계가 필요

지자체

중장기 계획수립

-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 필요
- 지역맞춤형 사업방향 수립 필요

주요 정책 연계 필요

- 정책 연계 전략으로 효율성 강화
-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국정과제 추진

사업 균형 운영

-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 마련
- 우수사례 배치마킹으로 정책 다각화

중장기 전략 마련 및
공공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유관기관

서비스 대상 및 봉사자 연계

- 대상자, 봉사자 연계 체계 구축
- 인적 자원 연계 및 돌봄 기반 마련

공동사업 운영

- 복합서비스 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
- 공동체 기반의 통합 서비스 실현

취약계층 통합지원

- 통합사례관리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긴급 지원 체계 마련으로 위기기정 지원 기반 마련

법인

사업의 자율적 운영

- 전문성 존중, 현장 중심 정책 실행
- 센터 자율 운영 제도 지원

꾸준한 재정 지원

- 사업의 지속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 장기적, 예측 가능한 재정지원 필요

센터와의 연계사업 변화

- 연계사업 방향 및 역할 재정립
- 협력사업 운영 영향 검토 및 조율

차별화 전략,
상호 보완적 협력 강화를
통한 지속성 확보

SWOT분석 전략적 시사점

01

센터의 정체성 확립
및 지속가능 성장체계
구축

02

AI·디지털 전환
대응 및
직원 역량 강화

03

원도심·신도심
격차 해소 및
맞춤형 복지 추진

04

재정 다각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강화

전략적 의사결정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조직의 경쟁력 강화

경영 체계도

미션

함께 성장하고 가족이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복지 실현



비전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함께 그리는 "Growing Partner"



핵심가치

존중

신뢰

협력



전략방향

I. 가족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 I-1. 가족구성원 역량강화
- I-2. 가족관계 향상
- I-3. 가족 자립 지원 확대

II. 지역사회 가족공동체 문화 확산

- II-1. 가족 놀봄 기능 강화
- II-2. 가족간 소통과 참여 확대
- II-3. 가족 친화문화 환경 조성

III. 가족복지 전문기관 영향력 강화

- III-1. 서비스 신뢰도 향상
- III-2. 지역사회 내 인지도 제고
- III-3.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2025년 지역특화사업

국가의 날

선정배경

인천 서구는 2022년 기준 인천시 내 다문화가족 인구 2위, 외국인 인구 3위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이 어우러 살아가며,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이주민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실시하였기에 선정

목적

다양한 국가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상호 문화 인식개선

목표

이용자 수 '25년 400명 -> '31년 500명, 지역사회 연계 '25년 2건 -> '31년 5건, 만족도 4.6점

주요내용

다문화(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 몽골) 이해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비다문화 가정의 상호작용 기회를 확대하는 체험부스 운영, 활동 소감 작성, 수기 공모

로드맵

2025-2026

지역 육구를 반영하기 위한 다문화 인구 분포, 문화 지원 등 특성 조사 및 기획 반영

2027-2029

지역 내 다문화-비다문화 가정이 공동기획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

2030-2031

지역 내 문화 행사와 연계한 지역 특화형 세계 문화 축제로 정착

확장성

가족 단위 세계 문화 체험 참여형 콘텐츠 개발

가족 간 협력을 통한 다문화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서 지역 공동체 활동으로 확장

가족 참여 중심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주체로서 가족의 역할 변화 도모



경영 목표

가족복지 서비스 이용자 수

64,000

전략방향 I 가족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과 전략방향 II 지역사회 가족 공동체 문화 확산 전반의 성과측정이 가능한 outcome 지표

프로그램 효과성

15%

전략방향 I 가족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구현과 전략방향 II 지역사회 가족 공동체 문화 확산의 가족서비스 효과성 제고 측정

센터 인지도

40%

전략방향 III. 가족복지전문기관 영향력 강화 전반의 성과측정이 가능한 output 지표

조직 운영 방안

구분	25-26년	27-29년	30-31년
조직구조 / 운영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에 맞춤 핵심기능 명확화, 목표 재설정 전략별 과제 중심 TFT 운영 정비 전략과제별 역할 명확화 성과 기반 관리체계 전환 교육 훈련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재구조화 및 적정 인력 배치 팀 간 협업 프로세스 체계화 사회적 이슈 대응 및 위기 관리 능력 강화 통합 성과 공유 시스템 구축 신뢰기반 조직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 기반 전환 통합 및 조정 기능 강화 거버넌스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연계 강화 개인별, 팀별 성과 관리 및 연계 강화 조직문화 지표 관리 및 혁신 추진

조직문화 혁신 방안

구분	25-26년	27-29년	30-31년
추진방향	공유 가치 중심 문화	소통과 참여 중심 문화	성장과 혁신 중심 문화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가치 재정립 핵심가치 내재화 PG운영 가치 기반 평가제도 운영 조직문화 지표 관리 및 혁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방식의 소통채널 운영, 소통 강화 참여형 의사결정 과정 정례화 피드백 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조직 운영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혁신 리더 양성

2025년 지역특화사업

거주외국인 한국어 교실

선정배경

인천 서구는 2022년 기준 인천시 내 다문화가족 인구 2위, 외국인 인구 3위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이 어우러 살아가며,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어 이주민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실시하였기에 선정

목적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내 상호 문화 이해 증진을 통해 안정적 사회통합을 도모

목표

이용자 수 '25년 2,400명 -> '31년 2,603명, 향상률 '25년 10% -> '31년 15%, 만족도 4.6점

주요내용

맞춤형 한국어교실(결혼이민, 근로자, 중도 입국 자녀 등)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교실 운영

로드맵

2025-2026

서구의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특화프로그램 시범 운영

2027-2029

권역 간 한국어를 활용한 상호 소통프로그램 확대 운영

2030-2031

한국어 학습경험과 자원을 연계하여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양인문화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확장성

한국어 강사 수업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운영을 통한 운영체계 표준화

수준별, 권역별 강사 교류 및 공동 연구를 통한 맞춤형, 전문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강사 리더를 육성하여 조직 내 강사 관리 및 역량 강화 시스템을 내재화

유관기관과의 자원공유를 통한 거주외국인

유관기관과의 한국어 활용 공동 사업 활성화

유관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자립형 한국어 지원체계 확립



감사합니다.



- ◆ 발표자 중장기 TFT 대표 공은희
- ◆ 일 시 2025.11.19
- ◆ 장 소 인천 서구 복지어울림센터 1층

발표 2

2025 서구지역주민 요구도조사 결과 발표

인천서구가족센터 이용자소통TF팀 김진희

인천서구가족센터 이용자 소통TF팀

2025 서구지역주민 요구도조사 결과 발표

| 소 속 이용자소통 TF팀

| 발표자 김진희

목차

01

조사배경
및 목적

02

조사개요

03

인천 서구
지역적 특성

04

조사결과 분석

05

결론

06

사업방향 제언

조사 배경 및 목적

조사 배경 및 목적



용구 분석



운영전략



근거 기반



네트워크



서비스 만족도

1

대상별 맞춤설계

2

센터 운영방향 정립

3

사업 프로그램
근거 확보

4

지역사회
협력전략 마련

5

참여도 및
만족도 제고

조사 배경 및 목적



인천 서구의 변화
최근 인구 증가
가족 구조의 다양화



지원 체계의 필요성
가족 기능 강화와
관계 회복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

04

본 조사에서 수집된 결과는 향후 인천서구가족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자원 배분 등 다양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

조사개요

조사 개요

대상	
조사 방법 및 내용	
조사의 강점	

- 만 10세 이상 전 연령층 주민 대상
- 다문화가족, 한부모 가족, 맞벌이 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유형 포함
- 총 1,019 건의 유효표본 수 확보

-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족센터 인지도 및 이용경험
- 가족서비스 참여 및 욕구
- 사례관리, 상담, 아이돌봄 서비스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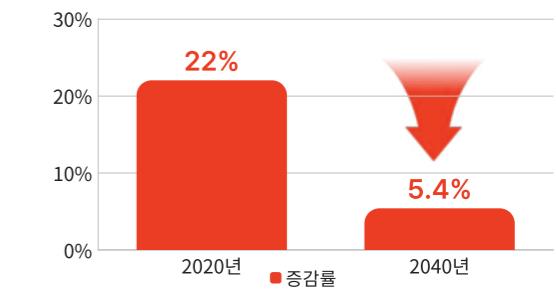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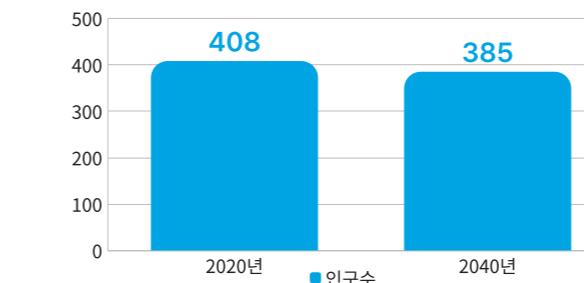
- 조사 대상의 확대
- 다언어, 다채널 전략
- 데이터 기반 성과 확보
-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
- 실증적 분석 체계 도입

07

인천 서구 지역적 특성

향후 인구 및 복지 환경 전망

'2020년 대비 '2040년 생산연령인구 감소 전망'



생산연령 인구 감소, 고령화, 신도시구도심 간 격차 확대 등 장기적 대응과 전략적 정책 설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역

[출처] 인천광역시. 2022. 인천광역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 결과보고

인천 서구 지역적 특성

인천 서구 지역적 특성

향후 인구 및 복지 환경 전망

서구·검단구 분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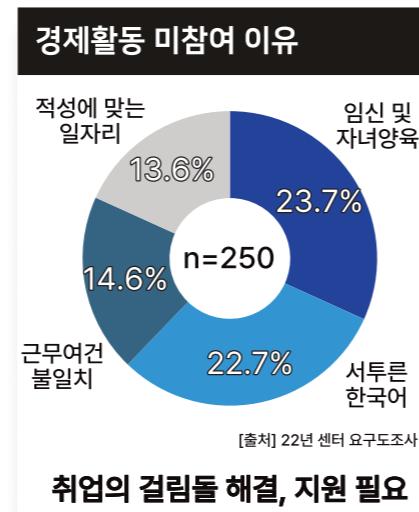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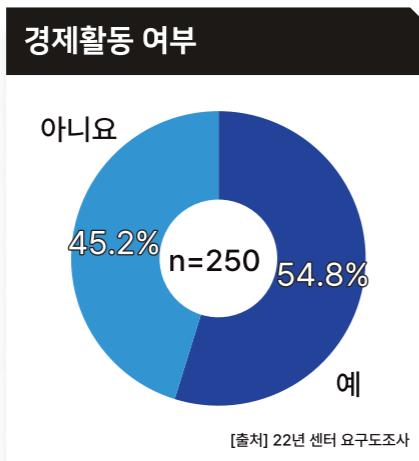


서해구 · 검단구 분구 예정

서비스 대상 지역과 인구가 축소되어
행정 집중도가 높아지고,
지역 맞춤형 복지모델 구축이 용이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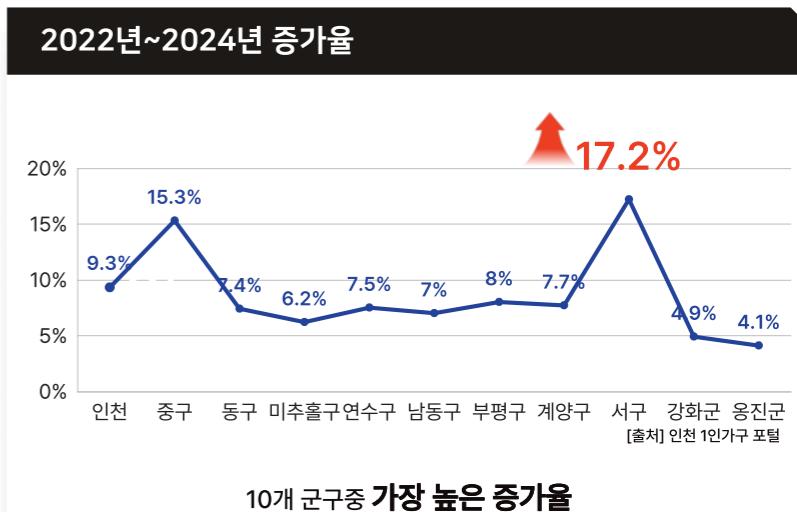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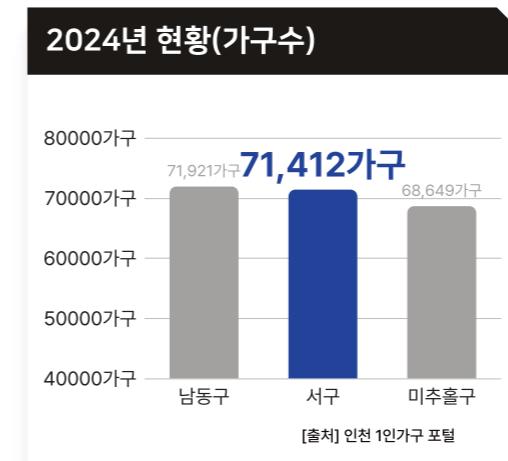
인천 서구 지역적 특성

인천서구의 복지대상자 현황_결혼이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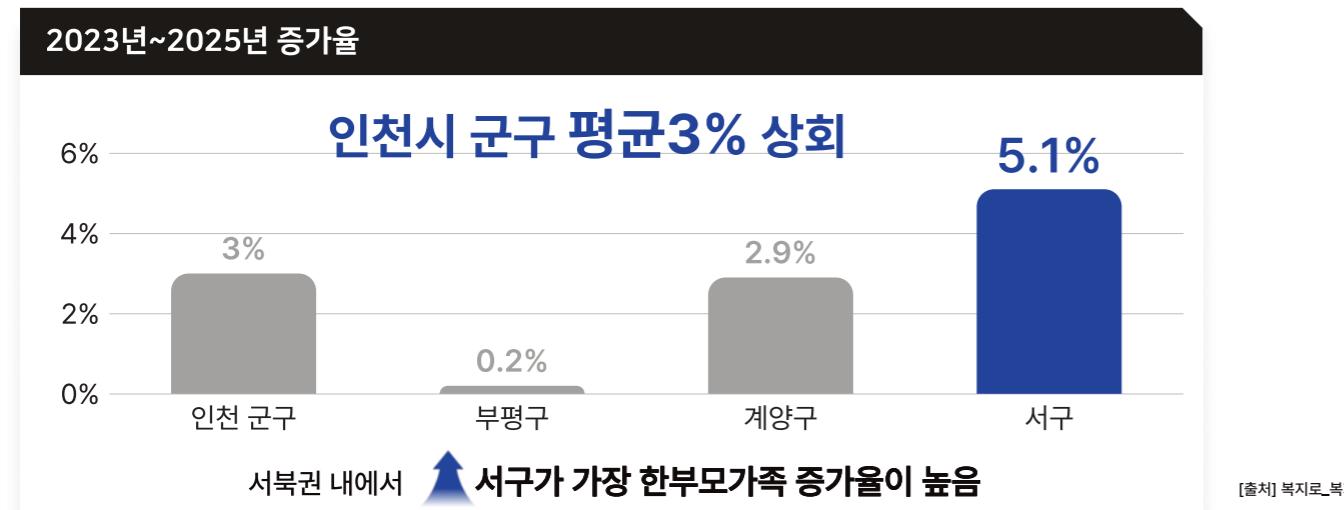
인천 서구 지역적 특성

인천서구의 복지대상자 현황_1인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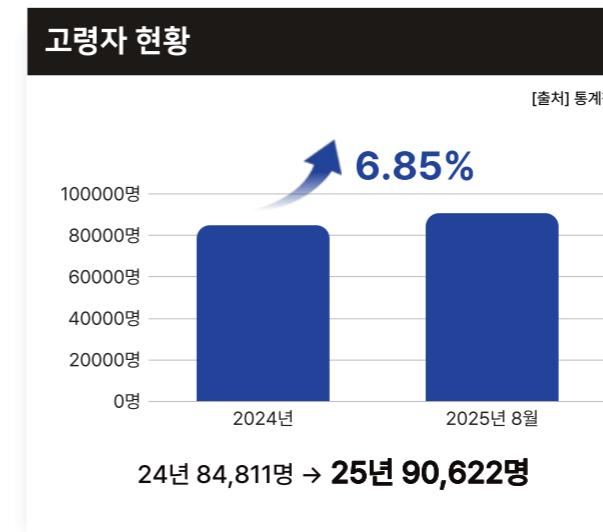
인천 서구 지역적 특성

인천서구의 복지대상자 현황_한부모가족



인천 서구 지역적 특성

인천서구의 복지대상자 현황_고령



인천 서구 지역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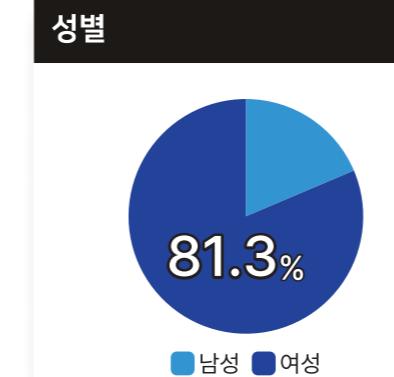
서구 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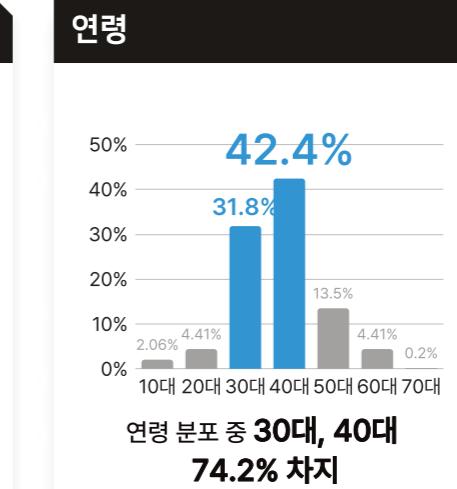
15

조사결과 분석

개인적 특성



전체 응답자 중 여성 (828명)이
남성(190명)보다 현저히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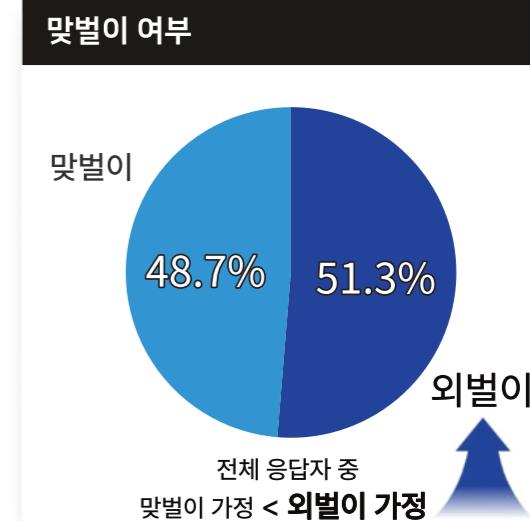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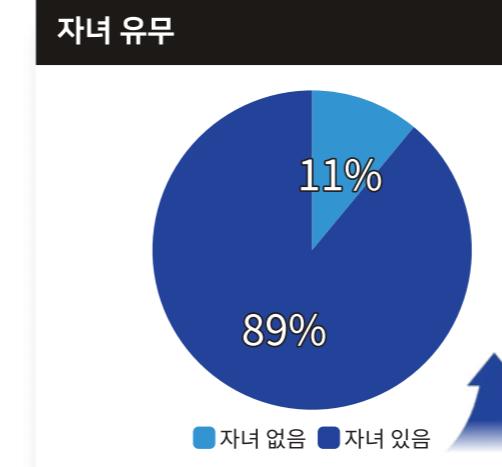
n=1,019

조사결과 분석

* 복수응답 문항으로, % 합계는 100을 초과할 수 있음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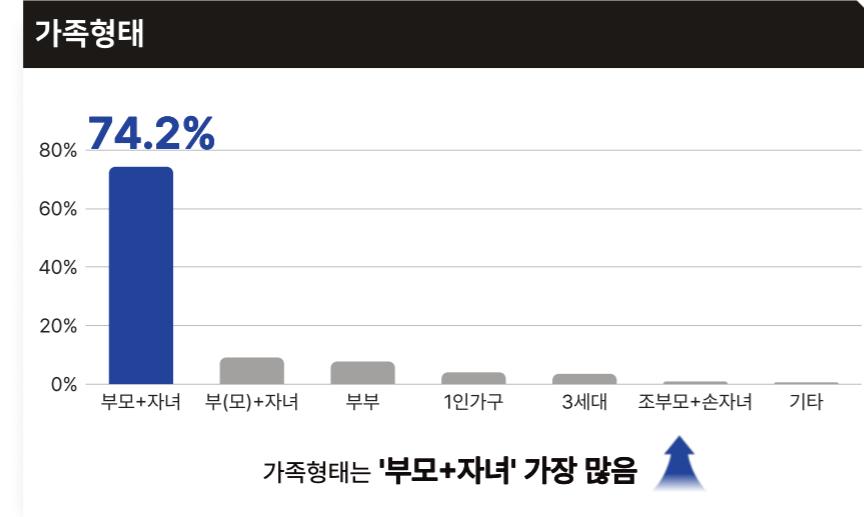
가구적 특성



18

조사결과 분석

가구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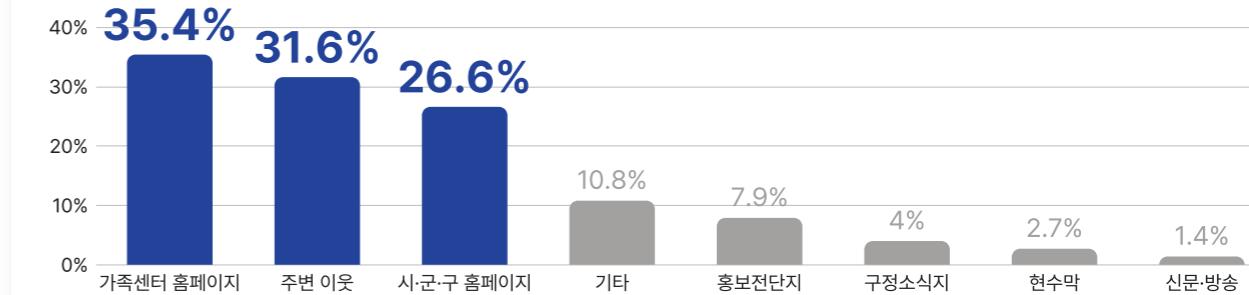


19

조사결과 분석

센터 인지 경로 및 정보 획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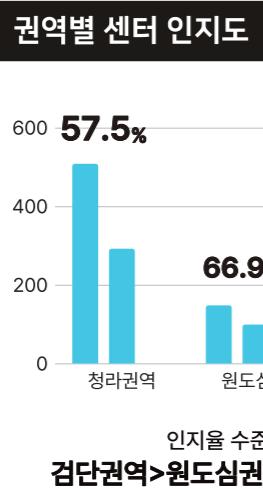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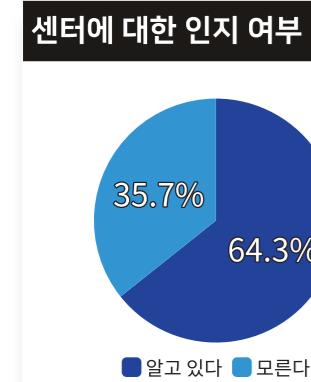
센터 인지 경로



n=655

조사결과 분석

센터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 경험



n=1,019

n=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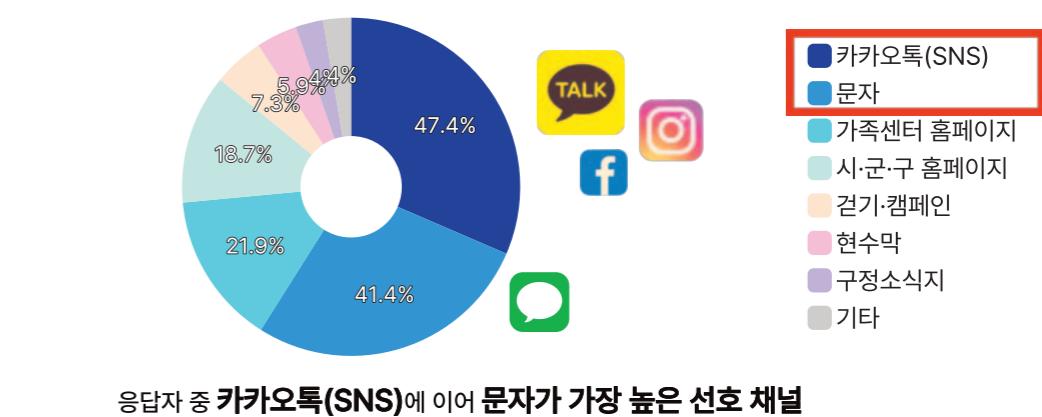
20



조사결과 분석

센터 인지 경로 및 정보 획득 방법

선호하는 정보 획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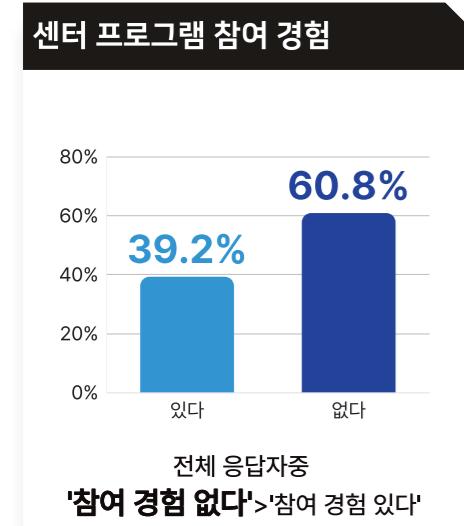


n=1,019

조사결과 분석

센터 프로그램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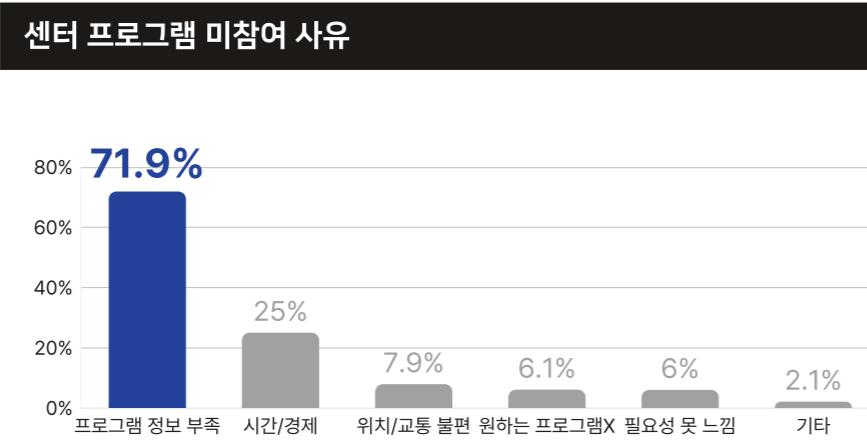
n=1,019



'참여 경험 없다' > '참여 경험 있다'

센터 프로그램 미참여 사유

n=62



'프로그램 정보 부족' 가장 큰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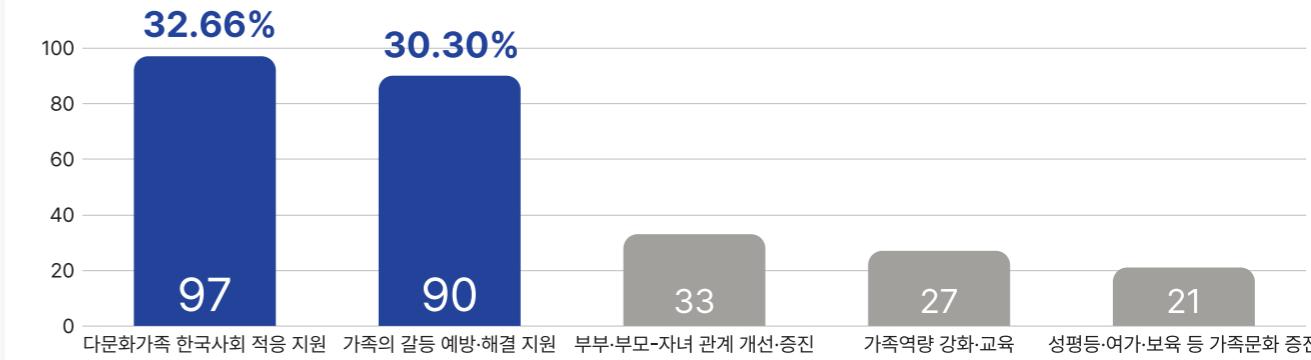
23

조사결과 분석

조사 문항 및 분석기준

n=30

인천서구가족센터 역할 우선순위(다문화 가구)



다문화 가구는 '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지원'에 이어 '가족의 갈등 예방·해결 지원' 2순위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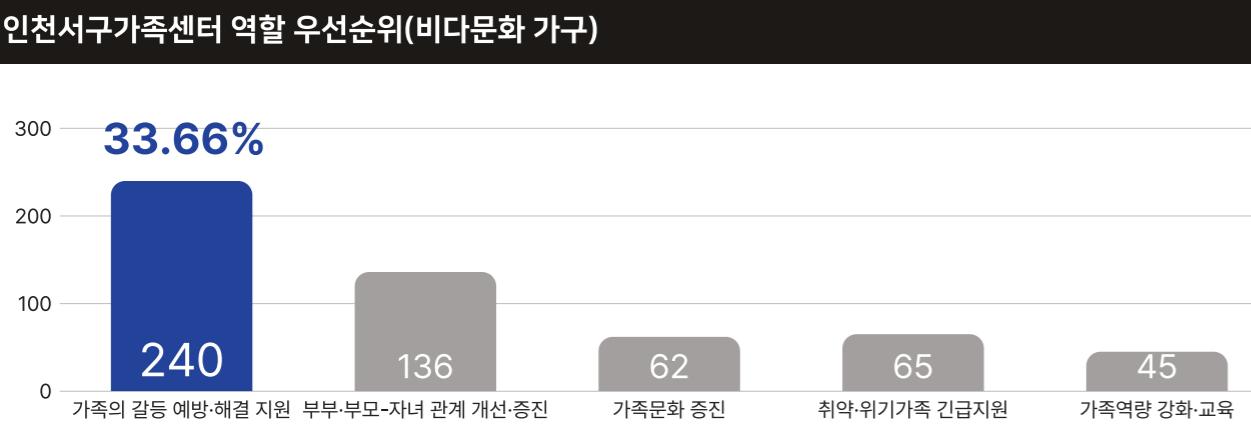
조사 문항 및 분석기준

인천서구가족센터 역할

24

인천서구가족센터 역할 우선순위(비다문화 가구)

716



'가족의 갈등 예방·해결 지원' 1순위로 가장 높음

조사결과 분석

센터 프로그램 관심도

센터 프로그램 관심도 순위_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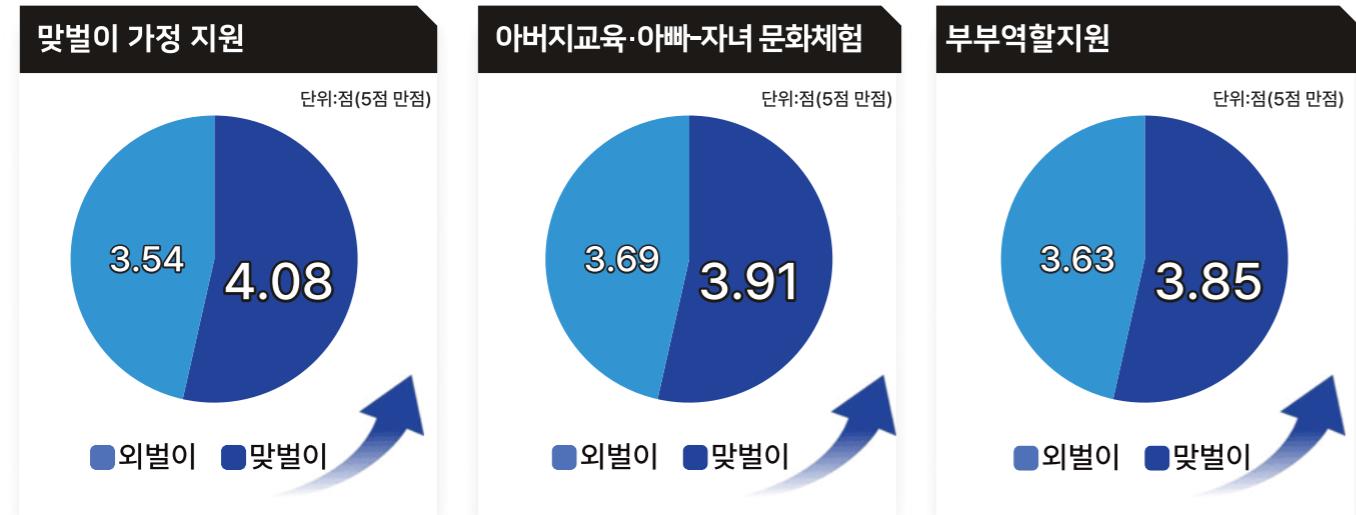
단위:점(5점 만점)

1. 자녀 대상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2. 가족여가체험(가족나들이 등)
 3. 가족문화축제(체험부스/그림대회) 4.11점
 4. 부모자녀 관계향상(소통) 프로그램 4.05점
 5. 부모·자녀 세계문화체험 4.02점

가족 동반 참여가 가능하고 체감 효익이 높은 체험형·관계강화형 프로그램 보편적 선호

조사결과 분석

센터 프로그램 관심도_소득 형태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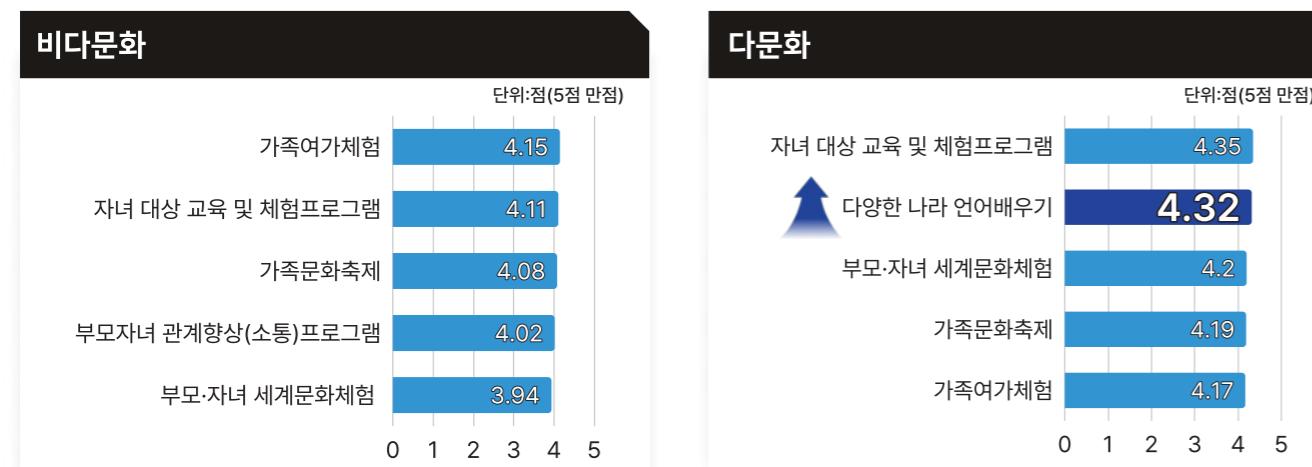
조사결과 분석

센터 프로그램 관심도_연령대(생애주기)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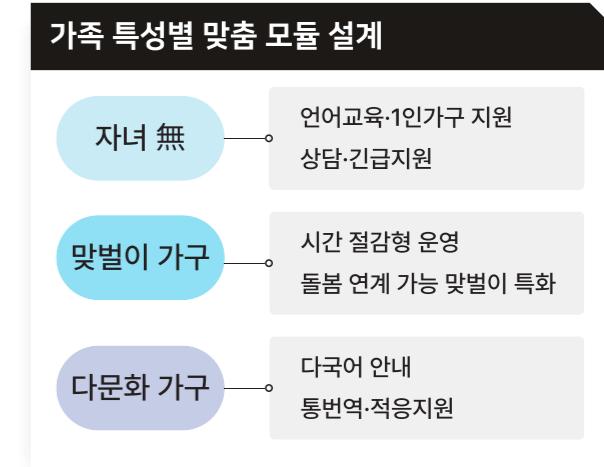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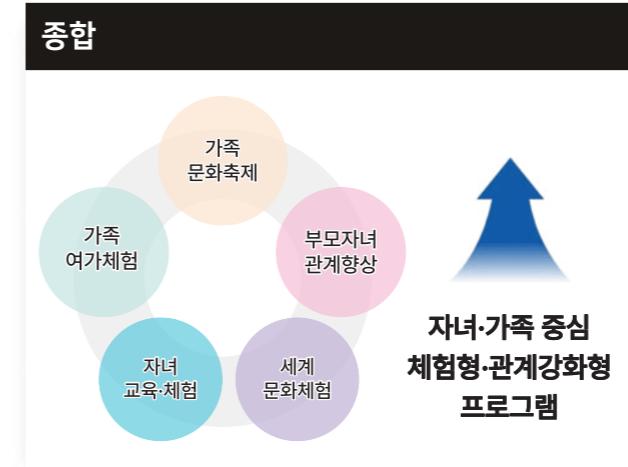
조사결과 분석

센터 프로그램 관심도 _다문화 가구 여부에 따른 차이



조사결과 분석

센터 프로그램 관심도



조사결과 분석

최근 경험한 어려움

최근 경험한 어려움_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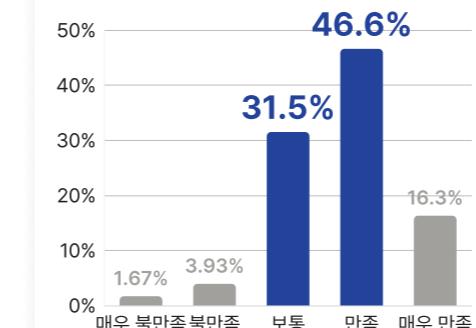


31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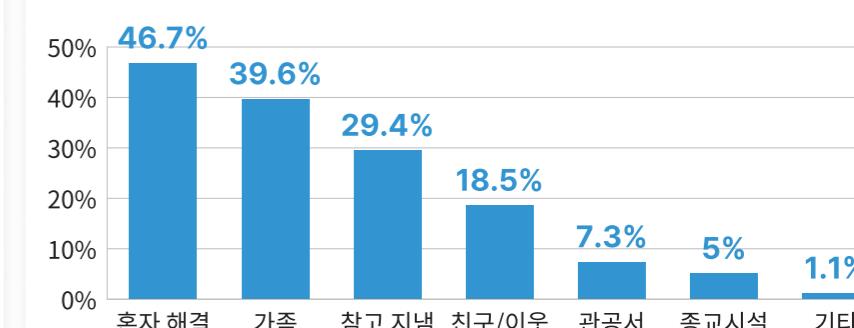
지역 주민 삶의 만족도 및 어려움 해결방법

지역 주민 삶의 만족도



생활만족을 위한 보편적 지원 여지 확인

어려움 해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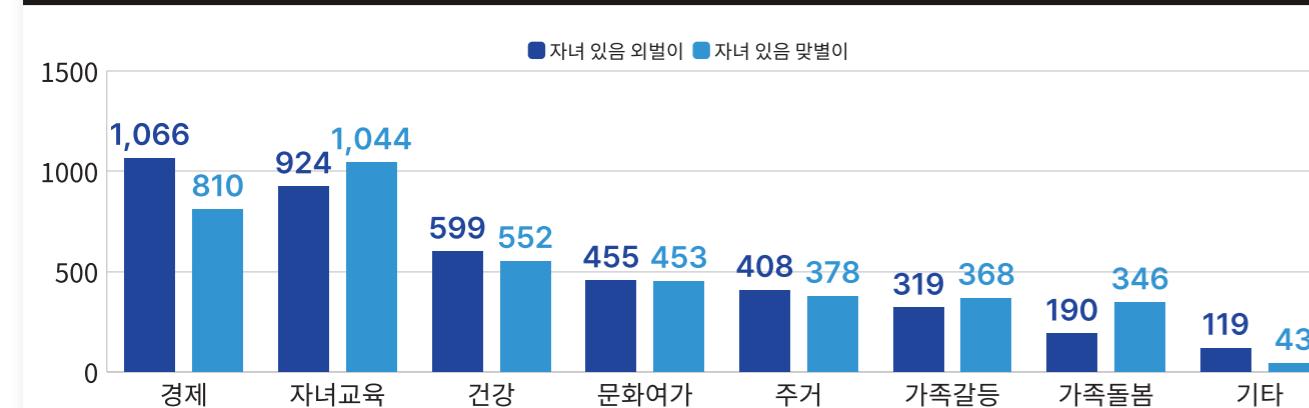


어려움을 주로 개인·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참고 지남 비중이 커 도움 요청을 주저하거나 미루는 경향 확인

조사결과 분석

최근 경험한 어려움

최근 경험한 어려움_자녀유무 및 소득형태(자녀유)



32

조사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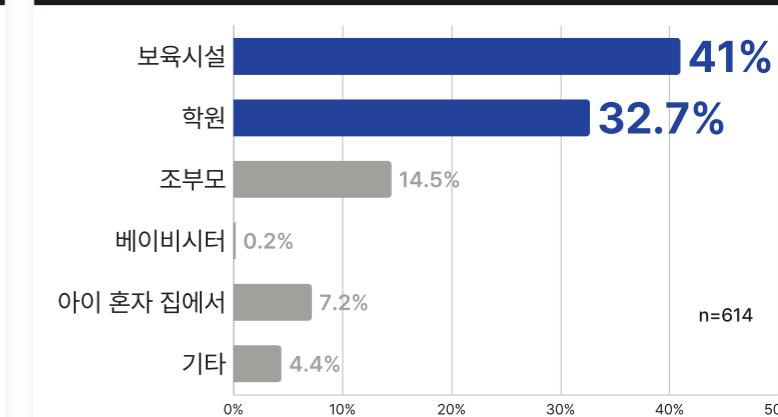
응답자의 일반현황

상담



필수상담 분야 1위 부모자녀관계

돌봄



양육 해결 보육시설, 학원 도움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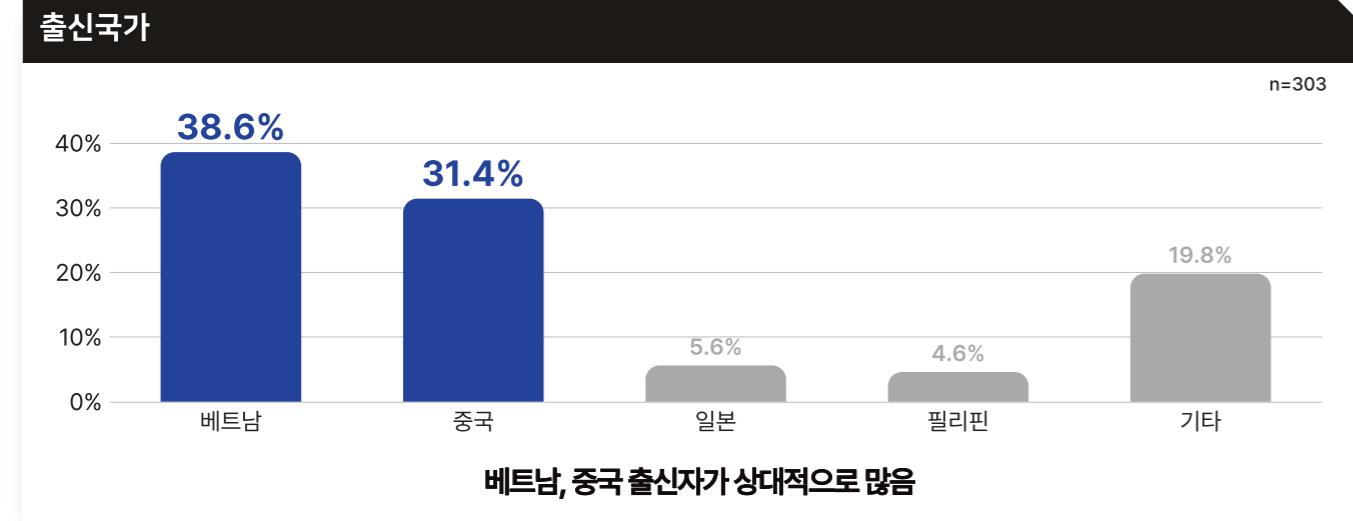
38

33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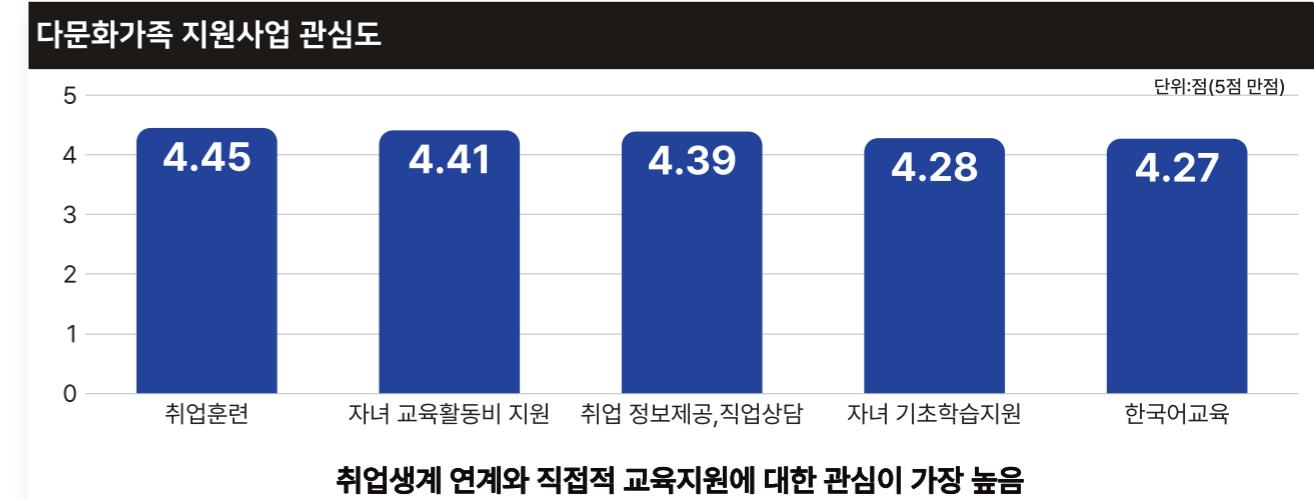
조사결과 분석

결혼이민자의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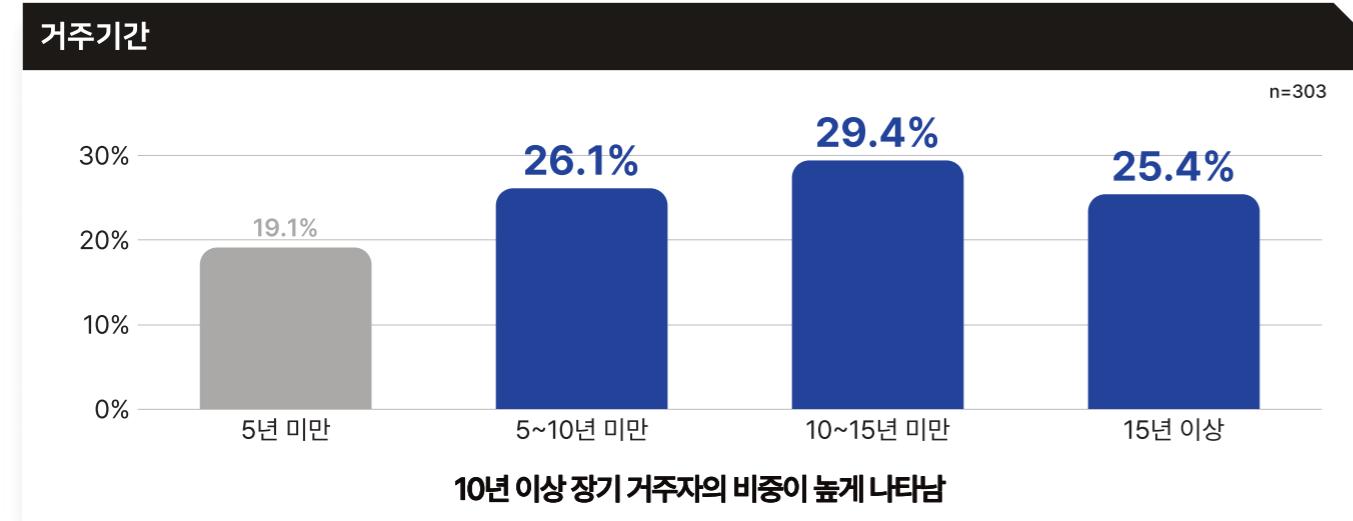
조사결과 분석

다문화 가구 선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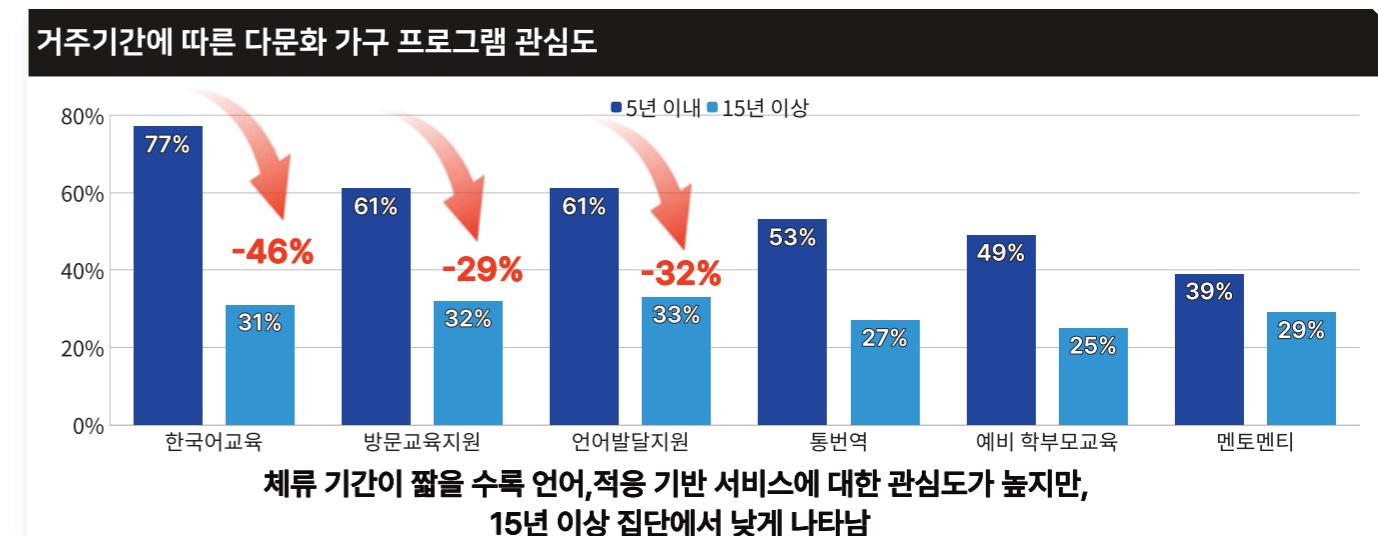
조사결과 분석

결혼이민자의 일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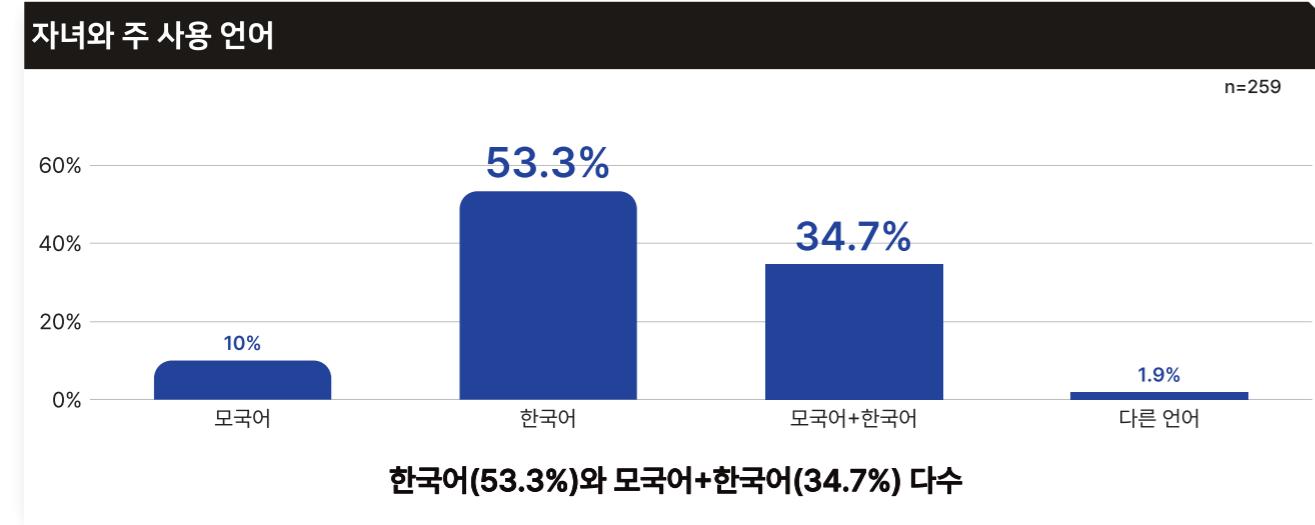
조사결과 분석

다문화 가구 선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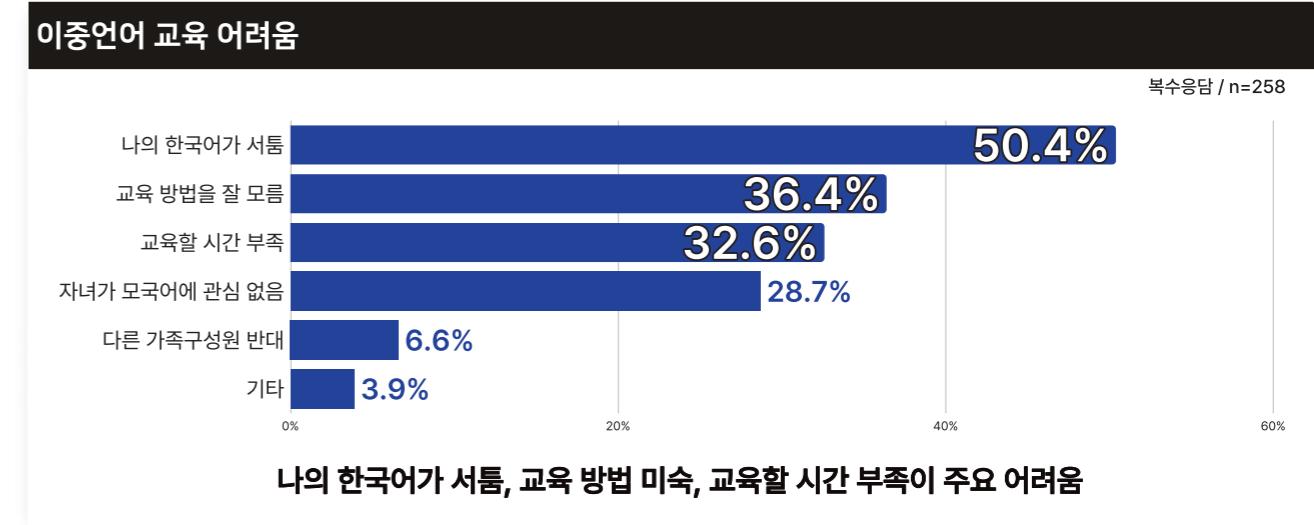
조사결과 분석

다문화 가구 자녀 관련 언어/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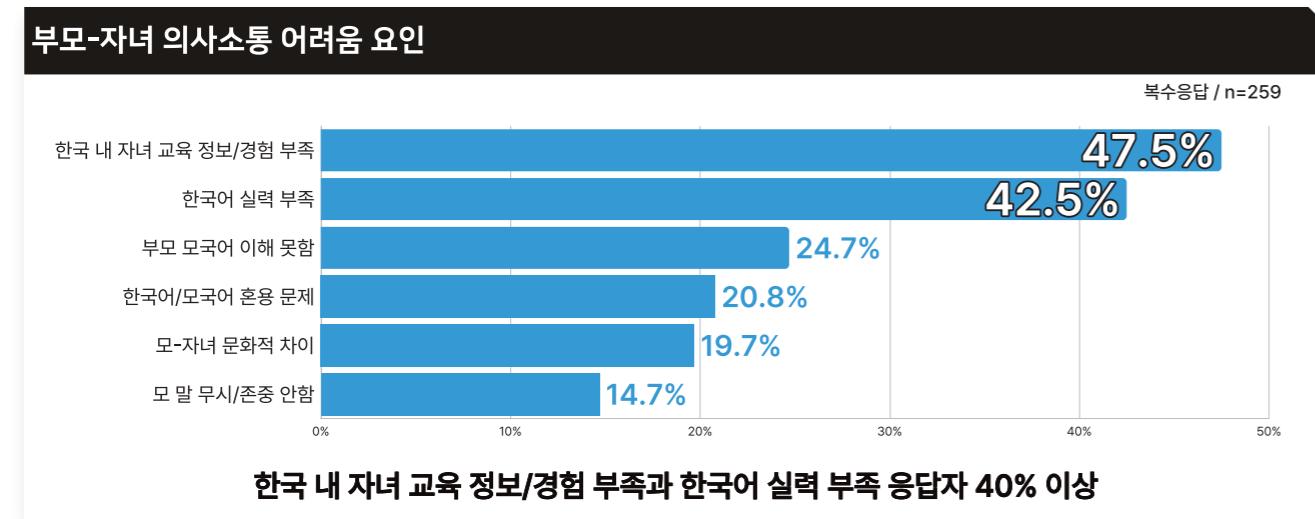
조사결과 분석

다문화 가구 자녀 관련 언어/의사소통



조사결과 분석

다문화 가구 자녀 관련 언어/의사소통



결론

사업방향 제언

결론

01
지역맞춤형
복지전달체계
필요

구도심 고령화와 관계복지 중심,
신도심 맞벌이 중심의
돌봄 양육지원 강화

02
권역별
생활특성 반영
맞춤형 소통전략

지역별 접근성 강화
홍보전략 세분화 필요

03
생애주기별
가족 유형별
맞춤형 사업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성 유지,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 병행

04
가족센터
기능과 역할

보편적 역할과 맞춤형 역할의
이원적 전략을 통한
통합적 복지체계 구축

43

사업방향 제언

01
맞춤형
사업수행

생애주기, 가족유형,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 수행

02
지역특성 기반 협력
네트워크

연령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03
다채널
홍보전략

카카오톡 채널, 문자메세지, SNS
적극 활용 다채널 소통 전략 도입

04
가족서비스
공식채널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가족복지 생태계
구축 필요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장문정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장문정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장문정입니다.

2025 인천서구가족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 방안 모색 포럼에서 토론자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기반으로 향후 가족복지의 방향성과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먼저 귀중한 발제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검단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지역과, 가좌·석남·연희동 등 오랜 기간 형성된 원도심이 공존하는 특수한 지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생활환경과 가족구성, 복지 욕구의 양상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올해 가족센터에서 실시한 지역주민 요구조사 결과는 세대별·가구유형별로 상이한 욕구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청년층은 주거 안정과 안전망을, 중·장년층은 건강관리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주로 요구했으며, 노년층은 돌봄과 응급안전 체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족·조손가족·취약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면서 지역 복지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가족센터는 지역의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구 구조와 가족형태가 급변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기존의 사업만으로는 새로운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가족 센터 사업은 유자녀 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개별 욕구까지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가족’과 ‘그 외 가족’처럼 대상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개인·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맞춤형 가족지원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 1인가구는 주거 불안정, 관계망 단절, 취업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입니다.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자립 준비청년은 주거·진로·정서·경제적 영역에서 복합적인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에게는 단기 개입이 아닌 지속적인 일상 회복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와 「사회적 고립·온둔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운영 중인 ‘우리동네 케스트 투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청년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도록 돋는 회복형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되면서 지역 기반 청년지원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또한 복합적으로 얹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주거 불안정, 정서적 지지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특히 청소년부모나 취약계층 한부모의 경우 학업 지속, 취업 준비, 자녀 성장지원까지 동시에 필요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족센터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가족센터는 지역 내 공공·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전달되도록 조정하는 지역 네트워크 허브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한부모·취약가구의 문제는 단일 기관이 해결할 수 없으며, 서구청, 교육청, 보건소, 고용센터,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상담·교육·돌봄·사례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가족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가족 문제는 예방-개입-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도시·원도심·농촌형 지역이 공존하는 서구의 특성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형 서비스·찾아가는 서비스·생활권 중심 프로그램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구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유연하고 실질적인 자립형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이 서구 가족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인천서구가족센터가 지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서구 주민 모두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 역시 복지도시위원회로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 2

지역 내 돌봄 및 양육지원에 따른 가족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장미숙

지역 내 돌봄 및 양육지원에 따른 가족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

장미숙 센터장(인천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1. 들어가며

인천광역시 서구는 향후 인구 구조와 복지 환경의 변화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천서구가족센터의 지역특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지역 주민의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가족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 내 돌봄 및 양육지원에 따른 가족센터의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인천서구 주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가족복지 사업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인천서구가족센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인천서구가족센터의 발자취와 고민

인천서구가족센터는 2007년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확대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인천서구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며 포괄적 가족복지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조직도에 따르면, 운영지원팀, 가족사업팀, 가족지원팀, 상담사례팀, 아이돌봄팀 등 총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장 포함 54명의 직원과 309명의 아이돌보미가 지역 내 가족복지 실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서구의 복지대상자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 결혼이민자: 2022년 대비 23년 11.6% 증가
- 한부모가족: 서북권 내 높은 증가율 5.1%
- 1인 가구: 2023년 대비 2024년 17.2% 증가
- 고령인구: 2025년 90,622명으로 6.85%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이러한 변화는 가족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특히 구도심은 고령화에 따른 관계 복지 중심의 서비스가, 신도심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양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력 구성도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에 부합하도록 재편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인력 충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지역 내 돌봄과 양육지원의 필요성

신도심을 중심으로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라 돌봄과 양육지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 내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수와 연계 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보여줍니다.

현재 서구는 403개소의 어린이집과 약90개소의 유치원이 운영 중이며, 기본 보육부터 시간제, 24시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움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모든 영유아가 만족 할 수 있는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유아뿐만 아니라 고령자, 1인 가구 등 서구지역의 통합 돌봄은 주거, 돌봄, 의료, 요양 등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서구주민이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돌봄이 적용되어야 하며, 온전한 돌봄 중심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홍보방안

가족센터의 기능 강화는 단독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
 -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 및 네트워크 활성화

▪ 다채널 홍보 전략

- 지역 주민 대상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 지역 방송, 커뮤니티 플랫폼 활용
-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도 제고

5. 나가며

인천서구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유형과 생애주기에 맞춘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돌봄과 양육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가족복지 실현의 핵심이며, 이를 통해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토론 3

인천서구 중장기 경영계획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방향성 모색

피앤아이컴퍼니 대표 손무권

인천서구 중장기 경영계획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방향성 모색

토론자 : 손무권(피앤아이컴퍼니 대표)

2025년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 결과와 2031년 중장기 경영계획자료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천서구가족센터 중장기 경영계획수립 과정에 함께한 입장에서 자료 분석 시 확인된 주요 내외부환경자료와 오늘 발표된 지역주민 요구도 결과를 반영한 인천서구센터의 지역특화사업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센터 내외부환경분석을 통한 특화사업 필요성 제기

2026년 분구(서해구)를 앞두고 있는 인천 서구는 빠른 인구 변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인구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해구가 앞으로 다양한 연령대와 가족형태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인구 분포, 생활 인프라, 사회적 관계망 측면에서의 편차가 크다는 것을 오늘 발표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도심은 젊은 세대와 맞벌이 가구 중심의 인구 유입이 활발한 반면, 원도심은 고령층과 1인 가구, 다문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단순한 생활환경의 불균형을 넘어 세대 간·문화 간 교류의 단절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이는 지역사회 통합이 주요한 과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1년 인천서구가족센터 중장기 경영계획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다문화가족 인구 15,186명(인천 전체의 19%), 외국인 주민 24,417명(인천 전체의 17%)거주. 다문화가족은 최근 5년간 30%, 외국인 주민은 6.4% 증가하여 인천 서구는 전국적으로 외국인과 다문화 인구가 밀집된 지역 중 하나로

지역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 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서구가 문화적 다양성은 풍부하지만 지역민들간 사회적 이해와 적응 지원이 중요한 지역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2025년 인천서구가족센터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다문화가정의 33.7%는 ‘가족 갈등 예방 및 관계 향상 지원’을, 다문화가정의 32.7%는 ‘한국사회 적응 지원’을 1순위로 가족센터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문화·비다문화 가정 모두가 가족관계의 안정과 사회적 적응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장기 경영계획수립 시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지자체는 상기에서 언급된 제반 인구 구조와 지역 격차를 고려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장기 경영계획수립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적으로는 인구 규모가 큰 지역 특성에 맞추어 다문화, 1인가구, 아버지, 자녀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노하우 보유 등 지역민의 복합적인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국가의 날이라는 지역특화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서구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인구 비중 증가, 세대간 지역간 격차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물리적인 공간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천 서구(향후 서해구 포함)는 빠르게 늘어나는 1인·고령가구, 증가하는 다문화 인구 그리고 지역 간 격차라는 복합적 구조와 「가족서비스 요구도 조사」에서 파악된 가족관계의 안정과 사회적 적응에 대한 욕구 확인을 통하여 수시로 다양한 문화·세대간 상호 이해와 교류가 중요함을 종합적으로 시사하고 있으므로 인천서구가족센터의 강점을 기반으로 다문화와 비다문화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합형 교류 프로그램 추진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지역특화사업(안)

사업명(가칭) : 서해 다(多)함께 성장 프로젝트

■ 목적

서구(서해구) 다양한 가족이 문화와 세대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 목표

- 인천서구는 다문화와 비다문화, 세대 간, 가족 형태 간 다양성이 공존하는 지역임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이해 중심의 가족문화를 확산시킨다.
- 인천서구는 고령층·청년층·1인가구·아동·부모세대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는 지역임으로 세대 간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기반의 상생 구조를 구축한다.
- 신도심과 원도심 간 생활격차를 완화하고 인천 서구라는 지역공동체의 연대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시 운영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

■ 주요 사업 활동(예시)

- 다문화·비다문화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음식·놀이 중심의 교류행사 운영
- 청소년과 어르신이 함께 참여하는 세대 간 공감 프로그램
- 신·원도심 주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통합형 가족워크숍운영 등

■ 단계적 로드맵

1단계 : 다문화 가족 중심 2단계 : 다문화와 비다문화 중심으로 확대 제안

■ 기대효과

- 다문화·비다문화, 세대·가족형태가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
- 서해구라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역 정체성 의식 형성에 기여
- 신도심과 원도심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간 심리적·사회적 거리감 해소에 기여

인천서구가족센터는 최근 “함께 성장하고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복지 실현”이라는 미션과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함께 그리는 “Growing Partner”가 되겠다는 원대한 미래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다양한 가족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고, 미래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적인 가족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다양한 가족이 세대와 문화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서해 다(多)함께 성장 프로젝트는 이러한 센터의 중장기 전략 방향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핵심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데이비드 S. 리 (David S. Lee) 등은 “나를 통해 우리로(I-Through-We): 지지적인 사회적 관계가 개인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원제: I-Through-We: How Supportive Social Relationships Facilitate Personal Growth)을 통해 타인의 지지는 개인 성장의 중요한 촉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칭) 서해 다함께 성장 프로젝트 또한 가족, 세대,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하는 관계망이 형성될수록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서해 다(多)함께 성장 프로젝트는 특정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 교류를 통하여 다문화와 비다문화, 세대와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이해 단계를 거쳐, 가족 간 소통과 공동 참여를 통해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협력 단계로 발전하여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성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신도심과 원도심,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이 주체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분구 이후에도 하나의 서해구로서 상생과 포용의 지역공동체가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인천서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원 체계의 재설계 방향

인천가족센터협회장 주영신

감사합니다.

인천서구 지역특성을 반영한 가족지원 체계의 재설계 방향

인천가족센터협회장 주영신

200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로 20여년 가까이 인천서구의 다양한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심정흠 센터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통해 인천서구가족센터가 “함께 성장하고 가족이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족복지실현”이라는 미션을 이루기 위해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함께 그리는 Growing Partner”로써의 비전을 가지고 가족사업을 이끌어 갈 7년이 기대됩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가족구조와 가족형태의 다변화속에서 인천서구가족센터가 지역주민 요구도 조사와 중장기경영 계획에 맞춰 개선할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 향후 인천서구가족센터가 보다 더 전문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성에 현재의 가족센터 사업이 부합한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¹⁾

첫째, 현재 가족센터 사업은 아동기 자녀를 둔 ‘유자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에 치중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 지 10년이 되어 가고 있지만 현행 가족센터는 두 센터의 기존 사업 운영에 머물러 있으며, 새로운 수요층을 발굴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둘째, 가족센터 사업은 소위 ‘일반가족’을 중심에 두고, 그 외 가족들을 나열하며 가족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족사업안내」에서는 일반가족과, 한부모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그 외 가족을 구분해 명시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을 선택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은 대상 집단을 역량이 부족한 가족으로 낙인찍거나 지원이 필요한 ‘어떤’ 가족을 배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 김소영·최인희·문희여·구혜령·이인선·권소영(2023)의 「가족변화 관점에서 가족사업 현황분석 및 개편방안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셋째, 사업별 참여 단위를 살펴보면, 집합적 단위로서의 가족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등 일부사업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유효할 수 있으나 가족 안에서 독립적 존재로 인정받기 원하는 개인의 욕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구성과 가치의 변화에 따라 돌봄과 관계 등 전통적인 가족 기능을 가족 내에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족중심으로 운영하던 가족센터 사업을 가족과 개인,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전략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서구의 지역적 특성은 면적이 넓고 도시지역과 농업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다양한 주거형태(신도시, 구도심, 농촌형주거 등) 및 가족형태가 공존하므로 인천서구가족센터는 지역별 맞춤형 가족지원사업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센터의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무엇을 주요한 사업으로 배치할 것인가? 관련해 돌봄과 관계 지원 등 가족구성 방식에 관계없이 보편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재배치, 개발하는 동시에 현재 가족센터의 유사·중복적인 사업을 정비해 가족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

■ 지역사회 가족의 실질적인 욕구 반영 : 지역마다 가족의 형태, 세대구성, 사회경제적 여건, 복지인프라, 문화적 배경 등이 다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 실제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효과성과 만족도 제고 :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운영하면 지역주민의 참여율이 낮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역자원과의 연계강화 : 지역마다 복지관, 학교, 기업, 자원봉사단체 등 활용가능한 자원이 다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지역기업과 협력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가족축제 등

■ 주민 주도성과 공동체성 강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은 주민이 직접 기획·참여 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입니다. 이는 가족센터가 단순히 서비스 제공기관을 넘어 지역가족공동체의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돋습니다.

■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증대 : 가족센터는 지역주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현장기관이며, 지자체는 지역복지의 책임 주최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실제로 지역에 맞게 실행·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와 협력이 없으면 가족센터의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민 입장에서도 지자체가 함께하는 사업은 신뢰도가 높고 참여율이 증가합니다.

예) 연수구 함박마을(고려인마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어 복지·돌봄을 위한 공간으로 건립된 「다가치세움소」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위한 돌봄, 상담시설이 입주되어 있으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건립된 「다가치배움터」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정규교육 이탈을 예방하고, 생활적응 상담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교류소」가 신축 중에 있으며 2026년 1월말경 연수구가족센터 다문화사업팀이 입주할 예정으로 상생교류소는 주민간 상호이해와 화합, 다문화정착지원, 내외국인 통합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기능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안인 이주배경 청소년 및 외국인 주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가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상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하게 될 것입니다.

2. 통합적 가족지원 기능 강화

상담, 교육, 돌봄, 사례관리 등 가족센터의 핵심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원스톱(One-Stop)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가족문제의 예방-개입-사후관리를 아우르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 회복지원이 필요합니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허브역할 확대

지자체와 지역내 복지·교육·문화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센터가 지역 내 가족지원정책과 사업의 조정·연계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디지털 기반 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AI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와 사업의 효율화 온라인 상담, 비대면교육, 디지털 가족관계 프로그램 등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 및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디지털, AI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와 사업의 효율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MEMO

5. 예방중심의 가족역량강화

가족갈등예방, 부모역량강화, 관계향상 등 사전 예방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이후 개입이 아닌 위기 예방과 기능 강화 중심의 가족지원을 운영의 핵심전략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6.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

1인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를 확대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기관 전문성 및 운영 역량강화

가족상담·사례관리·교육분야 인력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가족친화환경조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운영, 가족문화 확산 활동, 공동체 연계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가족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가족의 구조와 형태의 다변화속에서 가족센터의 위상과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가족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가족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MEMO

2025 인천서구가족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 방안 모색 포럼

인천서구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가족복지 사업 개발

발행 : 2025.11.19.
발행인 : 심정흠
발행처 : 인천서구가족센터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693번길 6
전화 : 032-569-1560
홈페이지 : <https://icseogu.familynet.or.kr/center/>

2025
인천서구가족센터 지역특화사업
추진 방안 모색 포럼

**인천서구 지역 주민 요구를
반영한 가족복지 사업 개발**